

# “호남 소외 설움 끝내고 다함께 잘사는 세상 만들어주길”

문재인 대통령 당선 광주·전남 지역민 반응

## 적폐 말끔히 청산한 뒤 협치와 통합 이뤄야 촛불민심 절대 잊지말고 그늘진 곳 살피길

9일 밤 제 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뿌리 깊은 ‘호남 소외’가 이제는 정말 사라져야 한다. 문 대통령이 그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촛불혁명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문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밝힌 대로 “적폐는 청산하되, 청산 이후에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협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다.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서 시름하는 이웃들을 보듬는 한편 세월호 참사 및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책임자 처벌에는 단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뿌리 깊은 ‘호남 소외’ 사라지길” =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주부 김다연(40)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 광주

를 찾아 ‘다시는 호남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가슴에 와 닿았다”면서 “집권 후 경상도 대통령도, 호남 대통령도 아닌 국민의 대통령으로 국정을 운영해 달라. 대통령 말씀처럼 더이상 호남을 아프게 하지 말아달라. 소외시키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광산구에서 자영업업을 하는 정성준(37)씨는 “산업·경제·관광·기술 등 전 분야에서 호남은 수십년간 소외된 채 철저히 고립돼 왔다. 특히 보수 정권 9년간 정부 고위직에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인들이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문 대통령이 호남 소외의 설움을 끝내달라. 호남 인물을 많이 기용해 주고 좋은 기업도 많이 보내줘 우리 지역 발전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적폐 청산 후 협치의 길 나아가길” = 오용운 바른세상새로운전남건설운동

본부 준비위원회(옛박근혜전 전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촛불혁명의 후보자임을 자임하면서 1700만 촛불이 바라는 우리 사회 적폐 청산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던 후보였다”면서 “국정난 단세력 연단, 재벌 개혁, 검찰 개혁 등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이라는 촛불 민심을 결코 잊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후식 5·18구속부상자회장은 “촛불의 염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쌓인 적폐, 환부를 도려내라는 명령으로 요약된다”면서 “집권 초기 과감한 적폐 청산 이후에는 온 나라,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 대 협치를 펼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 후 협치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진도 동거자 주민 이옥영(51)씨는 “세월호 유가족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듬고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에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백남기 농민 유가족 등 우리 사회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에게도 마음을 써주고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따뜻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후 8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투표 마감 직후 발표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막 내린 대선... 무더기 고소·고발 어찌나

### 회고록 파문·특혜 채용 등 주요 이슈 포함 주목

제19대 대통령 선거전이 막을 내리면서 유세과정에서 난무한 고소·고발 사건 처리는 고소란히 검찰의 속재로 남았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파문,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취업 의혹 등 선거 운동 과정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주요 이슈도 포함돼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점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상규)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결정에 앞서 북한 의견을 묻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한 ‘송민순 회고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민주당 측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냈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은 문 후보가 TV토론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러 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민주당 측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고발해 현재 서울지검 공안2부에 계류돼 있다.

유세전 막판 파문을 부른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도 범적 다름으로 비화해 검찰 수사를 통해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늦어도 11월 9일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선전이 종료된 만큼 사건의 경중과 시급성을 따져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손등 도장·엄지척·V자... 각양각색 인증샷

### 특정후보 지지 온라인 첫 허용

제19대 대통령 선거날인 9일 오후 4시께 박일우(32·광주 북구 용봉동)씨는 용봉동 전남대학교 캠퍼스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소 안내판 앞에서 손가락으로 브이를 만든 인증샷을 찍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박씨는 “요즘 투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이다”며 “투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함수자(여·58·광주 동구 충장동)씨는 아들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가 “인

증샷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상금을 주는 국민투표 로또에 응모하자”는 아들의 말에 인증샷을 찍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는 투표 인증샷이 처음으로 허용됐다. 이로 인해 엄지, 브이, OK사인 등 특정후보를 시사하는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온라인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시민들은 투표를 끝낸 후 선거시스템이 찍힌 손을 들어보이며 인증샷을 촬영하거나 투표소 입구에서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다.

또, SNS 인스타그램에는 사전투표날인 4일부터 투표 인증샷이 올라왔다. ‘투표’, ‘대선’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수십만 개의 투표 인증샷을 볼 수 있다. 시민들은 투

표소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특정 손가락, 손바닥, 손등, 팔뚝 등에 투표용 도장을 찍은 인증샷을 게재했다.

광주시 북구 문흥동 문흥1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한 뒤 선거 스탬프가 찍힌 인증샷을 SNS에 올린 김서영(28)씨는 “청년들이 취직, 결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표했다”며 “요즘은 투표 인증샷을 찍어 보이면 카페·공원장·극장 등 곳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인증샷도 찍었다”고 말했다.

월곡1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찍고 있던 정수연(여·33)씨는 “이제 막 3살이 된 아들을 위해 투표하러 왔다”며 “나중에 아들이 크면 아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표했다고 말해 주기 위해 인증샷을 남겼다”고 말했다.

전은제기자 ej6621@kwangju.co.kr

## 댄스학원·태권도장·예식장이 투표소로

### 이색 투표소 등장 눈길

댄스학원·태권도장·예식장·전시관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소로 거듭났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주민센터·학교 등 전통적으로 투표소로 애용되던 곳뿐만 아니라 유권자 편의를 고려한 이색 투표소가 등장,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 북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이 투

표소로 변신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1층 제문헌에 마련된 북구 용봉동 제6투표소에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인 고 백남준의 설치작품인 ‘고인돌 1995’ 앞에 기표소 3개가 설치됐다. 투표하러 온 시민들은 이색적인 투표소의 모습에 만족스러워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시민들은 투표소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거나 아이의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어주기도 했다. 이

곳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 지난해 4·13총선 당시에도 투표소로 쓰였다.

북구 용봉동 퀸스웨딩컨벤션·동구 지원동 관가예식장 등 인생 최대 ‘축복의 장’인 예식장도 새 대통령을 뽑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다. ‘청춘발랄’ M댄스아카데미원은 동구 동명동 제2투표소로, 광주시체육원은 동구 학운동 제4투표소로 탈바꿈했다.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국궁장 송무정, 남구 송암동 천하태권도장에도 투표소가 설치돼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왔다.

전은제기자 ej6621@kwangju.co.kr

## 기표 투표지 촬영 공개·특정후보 기표 유도 등 광주지검, 대선 고소·고발 13건 수사

광주지검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6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대선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지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해 구성원 17명에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완도군 한 노인요양시설 거소투표신고인 12명에게 특정후보에 기표하도록 한 요양보호사 B씨를 조사할 방침이다. B씨는 지난달 30일 해당 시설에서 고령으로 인지가 거의 없는 거소투표자의 손을 잡고 기표하거나 투표용지의 특정난에 기표하도록 유도했다

전남도선관위에 적발, 검찰에 고발됐다.

8일 대선 선거운동이 막을 내리면서 광주·전남에도 고소·고발 사건이 잇따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이날까지 대선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총 13건·17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1건(1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또 다른 1건(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11건·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부분은 선관위 고발(7명)이었고, 정당(2명)과 일반인(3명) 고소·고발도 접수됐다. 경찰도 5건(인지 4건, 정당 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내사 중인 사건은 총 10건·11명(검찰 2명·경찰 9명)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양이 방화 사건’ 한바탕 소동

○광양에서 중학생들이 살아있는 고양이를 불에 태워 땅에 묻었다는 내용의 글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하자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는 등 한바탕 소동.

○9일 광양경찰청에 따르면 광양시 광영동에 사는 중학생 A군은 지난 6일 오후 7시께 집에서 기르던 새끼 고양이 죽자 인근 공원에 묻었는데, 이를 알게 된 친구 3명이 이날 오후 7시께 땅속에 묻은 고양이를 파서 불에 태웠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SNS에 퍼진 내용과 달리 고양이는 살아있는 게 아닌 죽은 상태였고 호기심에 불을 붙인 것”이라며 “학생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주의와 함께 반성문을 쓰게 한 뒤 귀가 조치했다”고 설명. /광양=김경원기자 kkw@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700,000,000**

**광산구 오선동 공장(전곡산업단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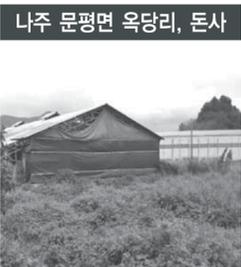
대지 2531평 최저가 4,278,000,000  
건물 753평 감평가 6,112,000,000

**담양 담양읍 삼다리, 대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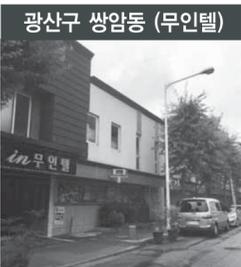
토지 523평 최저가 311,000,000  
개발축적지구 최고가 311,000,000

**나주 문평면 옥당리, 둔사**



토지 1417평 최저가 321,000,000  
건물 484평 최고가 321,000,000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대지 415평 최저가 2,521,000,000  
건물 577평 최고가 4,502,000,000

**서구 화정동 원릉(화정역인근)**



토지 94평 최저가 549,000,000  
대지 157평 감평가 784,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최저가 742,000,000  
건물 305평 감평가 1,059,000,000

**운영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익성 좋음)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